

김정일 위원장, 중국 대표단 및 러시아 상원의장 접견

1. 개 요

-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9.12 북한을 방문중인 중국 당·정 대표단을 접견(9.12, 중·평양)하고, 대표단과 함께 중국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(9.13, 중방)했으며

※ 접견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으며, 공연 관람시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, 김기남 비서, 강석주 제1부상 등이 동행

- 평방)하였다고 보도하였음.

2. 주요 내용

〈중국 당·정 대표단 방북〉

- 중국 당·정 대표단은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초청에 의해 9.10~13간 북한을 방문하여

※ 중국 대표단 구성: 리창춘 정치국 상무위원(단장), 왕자룩이 대외연락부 부장, 길병헌 선전부 상무부 부장, 류홍차이 대외연락부 부부장,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, 가오후청 상무부 부부장 등

- 9.1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박봉주 내각총리와 면담하고
- 9.12 김정일 위원장과 접견시, 중국 리창춘 상무위원이 김정일 위원장에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고, 강택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인사를 전달하였음(9.12, 중·평양).

○ 북한은 중국 대표단이 도착하는 날,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 평양 방문 소식을 알리면서

- “우리는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이번 우리나라 방북이 전통적인 조-중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”고 보도하였음 (9.10, 중방).

○ 중국 당·정 대표단 단장인 리창춘 정치국 상무위원은 9.11 박봉주 내각총리에게 중국이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였음(9.13, 중방).

<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 방북>

○ 러시아 라브노프 연방평의회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에 의해 9.12~14간 북한을 방문하여

- 9.13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회담, “조-러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”하고 (9.13, 평방)

- 김정일위원장과 접견시,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음. (9.13, 평방)

3. 분석

○ 김정일 위원장이 중·러 고위인사를 잇달아 접견한 것은 9.9절 및 북·중 수교 55주년을 계기로 중국·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다지고

※ 금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총 65회로 군관련 44회, 경제 관련 5회, 대외관련 12회, 기타 4회임.

- 최근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·러시아와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대미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 강화와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보임.
- 한편 러시아는 상원의장의 방북을 통해 북·러간 관계진전 움직임을 의회차원으로 확대·심화시켜 나가려는 것으로 보임.